

◆ Library Science Education's in 1972

## 韓國의 圖書館學教育

—1972年度の 回顧와 反省—

鄭 駟 謨  
(中央大學校 圖書館學科 教授)

### I. 머리말

지난 一年동안의 圖書館學教育의 成果를 回顧하고 批判하는데 있어서는 그 性格上 表面的인 現象以外에는 論及될 수 없을 것이다. 教育이란 萬年大計로서 圖書館學教育을 一年동안에 한한 특별한 計劃下에 실시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教育이나 學問은 人間의 知的 啓發作用이기 때문에 그 結果가 그렇게 짧은 時日內에 客觀的으로 反映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圖書館學教育에 관해서 과거에 몇몇 筆者들에 의해서 指摘되었던 주요한 問題들이 그동안 어떻게 反映되었는가를 살피고, 올해에 있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回顧하면서 筆者의 私見을 부연하고자 한다.

### II. 이미 指摘된 問題點과 그 反應

韓國의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의 問題點에 관해서 지난 數年동안 梨花女子大學校의 金世翹 教授와 成均館大學校의 千惠恩 教授 및 筆者등이 每年 年例的으로 이를 論及한 바 있다. 이러한 論述가운데 提示된 問題들이 그동안 어떠한 反應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綜合해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整理할 수 있을 것이다.

① 韓國의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의 새로운 導入되는 理論과 實際를 우리의 文化的 社會現象에 적응되도록 教育內容을 再構成해야 한다.

② 圖書館學教育은 實務보다도 知識의 背景과 그 理解를 基礎로 삼아야 한다.

③ 圖書館學科 4年課程의 專攻科目은 40學點 程度로 하고 나머지 學點은 一般教養 語學 및 他主題의 副專攻을 配定하여 專門職으로서의 基本知識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1·2학년에서는 教養科目과 語學만을 철저히 教育시키고 3·4학년에서 專攻科目과 副專攻科目을 병행하여 教育시켜야 한다.

④ 專攻科目에 있어서는 資料組織의 技法보다는 오히려 文獻奉仕를 위주로 해야 하며 專攻選擇의 폭을 넓혀야 한다.

⑤ 語學에 있어서는 「東洋의 書誌學分野」를 專攻할 사람은 漢文과 日本語를 中級以上 必須하도록하고, 科學·技術書誌나 情報科學分野를 專攻할 사람은 獨語나 佛語中에서 擇一하고, 人文科學書誌나 社會科學書誌分野를 專攻할 사람은 獨語나 佛語中에서 擇一하고 또한 漢文과 日本語中에서 擇一하도록 하여 두개의 第2外國語를 履修하도록 해야 한다.

⑥ 圖書館學分野에 있어서의 世界各國의 單行本圖書를 비롯해서 專門的인 學術誌, Pamphlet 등을 망라적으로 蒐集하는 센터가 設立되어야 한다.

以上에 열거한 事項은 韓國의 圖書館學教育에 있어서의 指標를 올바르게 設定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들의 指標를 6개항으로 나누어서 열거했으나 사실상 第①②項이 가장 基本이 되는 原則이며 ③項부터 ⑤項까지는 第①②項의 原則에 관련된 具體的인 細部事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第⑥項은 教育의 바탕이 될 研究를 위한 事項이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이와 같이 提示된 問題들에 대한 反應을 알기 위해서는 ③④⑤⑥項을 再檢해볼 必要가 있을 것이다.

우선 第③項에 관해서 檢討해 보면 최근 延世 梨花 中央 成均館등의 4個大學 圖書館學科의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과거에 비하여 學科目的 名稱이 상당한 變化를 가져왔으나 專攻科目의 學點數는 80學點 程度로서 表面上的 變動은 없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教科課程表를 具體的으로 檢討해 보면 形式上 專攻科目으로 配定된 學科目的에는 專攻의 基礎가 될 語學이다 教養科目이 많은 學點數를 차지하고 있으며, 各大學의 실제적인 專攻科目의 學點數는 대체로 다음 表와같이 分析될 수 있다.

4個大學의 실제적인 專攻科目學點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計
延大	3	12	14	14	43
梨大	4	8	24	24	60
中大		12	18	22	52
成大	3	12	24	18	57

이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4個大學이 거의 다 같이 1學年에서 실제적인 專攻科目은 3·4學點 밖에는 配定하지 않았으며 中大에서는 專攻科目을 전혀 配定하지 않고 敎養 및 語學科目만을 履修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2學年에서도 專攻科目은 8學點 내지 12學點을 配定하고 기타의 12學點程度는 專攻의 基礎가 될 語學과 敎養科目을 履修하도록 했으며, 專攻科目은 주로 3·4學年에 치중해서 配定하고 있다.

실제적인 專攻科目의 總學點數는 延大가 43으로 가장 바람직한 學點數를 提示하고 있으며, 中大가 52, 成大가 57, 梨大가 60으로 提示되고 있다.

第④項에 관련해서 前記한 4個大學의 敎科課程가운데 資料組織의 技法에 관련된 學科目配點과 文獻奉仕에 관련된 學科目配點을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

資料組織과 文獻奉仕와의 學點對比

資料組織關係學點		文獻奉仕關係學點	
延大	分類와 編目 6 非圖書資料 3 古書資料整理 3	6 12 3	參考奉仕 6 韓國典籍解題 3 東洋典籍解題 3
梨大	分類와 編目 9 視聽覽資料 3	12 3	圖書館文獻 6 參考奉仕 3 書誌學 3 東洋書誌 6 社會科學書誌 3 人文科學書誌 3 自然科學書誌 3
中大	分類法概論 3 編目概論 3 資料組織論 6 古書目錄法 3 非圖書資料 3	3 3 18 3 3	參考奉仕 3 書誌學 3 漢中典籍 4 人文科學書誌 3 社會科學書誌 3 自然科學書誌 3
成大	資料組織法 9 古典資料組織法 3 非圖書資料組織法 3	9 15 3	書誌學 3 參考調查 3 近代韓國主題別史料 3 人文科學書誌 3 社會科學書誌 3 科學技術書誌 3 韓國書誌 3 中國書誌 3

以上の 學點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같이 資料組織法에 相關된 學點數와 文獻奉仕에 相關된 學點數의 比率은 延大가 12 : 12, 中大가 18 : 19 거의 對等하며 梨大는 12 : 27로 文獻奉仕關係가 2倍 以上이 되며, 成大는 15 : 24로 文獻奉仕關係學點이 1·6倍나 된다. 그러므로 綜合的으로 본다는 文獻奉仕關係를 치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專攻選擇의 폭에 관련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延大는 圖書館學科의 敎科課程에 配定될 專攻選擇科目이 66學點이나 기타에도 他學科의 專攻科目가운데 約 40個科目을 專攻選擇으로 認定하고 있기 때문에 選擇의 폭은 무한히 넓으며, 이 가운데 50學點을 選擇하여 履修하도록 하고 있다.

梨大는 專攻選擇을 위한 學點配定은 18學點으로 그 가운데 6學點을 選擇 履修하도록 하고 있다.

中大는 專攻選擇을 위한 學點數는 形式上으로는 10學點이 있으나 事實上 이것도 必須하게 되어 있다.

成大는 專攻選擇을 위한 學點數 63學點가운데 42學點을 履修하게 되어 있다.

第⑤項에 相關된 語學問題는 各大學의 敎科課程表에 나타난 科目名稱만으로서는 正確히 把握할 수 없으나 (典籍解題등은 그 講義內容이 語學을 結合하고 있는지 解題만을 주로 하는지 不明) 대체로 다음과 같이 分析된다.

	英語	獨佛擇一	日語	漢文
延大	12	4	18	18
梨大	4	4	8	8
中大	12	4	8	8
成大	10	4	12	9

以上으로 미루어 보아 延大에서는 日語와 漢文에 상당히 치중하고 있으나 기타의 3個大學은 좀더 이에 配慮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第⑥項에 提示한 圖書館學分野의 文獻센터 設置問題는 전혀 그 움직임이 엿보이지 않는다.

以上에서 이미 數年前부터 指摘된 韓國의 圖書館學敎育에 있어서의 問題點과 그 反應을 검토해본 바 대체로 바람직한 反應을 나타내고 있으나 延大를 제외한 3個大學에 있어서 아직도 專攻選擇의 폭을 더 넓혀야 한다는 問題와 圖書館學分野의 文獻센터 設置問題가 앞으로의 課題로 남아있다. 그리고 日語와 漢文 및 東洋의 書誌에 치중할 것을 다시 한번 強調하고 싶다. 특히 梨大의 李鳳順 敎授 (第28次 東洋學者大會圖書館 세미나 報告書)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問題부터 철저히 익혀야 하며 특히 世界의 눈이 東洋에 쏠리고 있는 차제에 東洋의 學問이나 文獻을 다루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가장 有利한 立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Ⅲ. 年間行事回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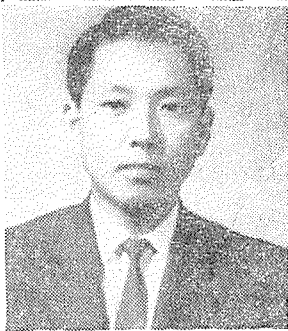
今年度 圖書館學敎育界의 특기 할만한 일은 韓國圖書館學敎育協議會가 發足한 事實일 것이다. 同協議會는 圖書館學敎育에 있어서의 敎科課程이나 敎科內容에

관한 문제들을有機的으로 協議하기 위해서 延大 梨大 中大 成大 등 4個大學의 圖書館學科專任敎授로 構成된 協議體로서 韓國의 圖書館學敎育發展에 實地적으로 寄與할 것으로 크게 기대되는 바이다. 同協議會는 今年 6月 準備委員會를 거쳐 9月 30日 第一次 會議에서 會則을 通過시켰으며 그동안 圖書館學科의 名稱問題와 圖書館學科 學士學位名稱問題등을 論議한 바 있다. 기타의 주요한 業績으로서는 「圖書館學」第2輯의 發刊과 두차례의 學術發表會를 들 수 있을 것이다. 「圖書館學」第2輯의 發行日字는 1971年 12月末 日字로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今年 봄에 發行된 것으로 그 內容은 張一世 先生의 「우리 나라에 있어서의 저자기호법에 관한 연구」, 具滋榮 敎授의 「目錄作成을 위한 圖書館相互協助」, 筆者의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 鄭亨思 敎授의 〈裨林〉과 〈大東野乘〉의 異同 등 「論文 4篇과 李鳳順 敎授의 第28次 東洋學者大會圖書館세미나 報告書」이다.

學術發表會 第1次는 今年 5月 20日 韓國圖書館學會

定總會를 기하여 梨花女子大學圖書館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여기에서는 筆者가 「圖書館學」 第2輯에 收錄한 「圖書館名稱의 變遷에 대하여」를 發表한 바 있다. 第2次 9月 30日 역시 梨大圖書館에서 開催된 것으로 여기에서는 延大 李載喆 敎授의 「한글 숫자기호법의 도서기호로서의 문제점」 中大 沈喞俊 敎授의 「삼국사 절요에 대한 1·2문제」, 筆者의 「韓國文獻記號法研究」 및 國立中央圖書館의 李承周 先生의 「뉴질랜드 도서관계의 상황」 등이 發表되었다. 會員의 參席은 많지 않았으나 學術發表는 진지하게 進행되었다.

끝으로 私見을 부연한다면, 우리는 例年 學術發表會를 數次 開催하고 있으나 會員의 參與意識이 너무나 미약하다고 느껴진다. 圖書館學敎育에 宗事하는 분들이나 圖書館專門職에 宗事하는 분들은 앞으로 學術活動에 적극적으로 參與해야 할 것이며 獨創적이고 깊이있는 研究를 활발하게 推進하여 韓國의 圖書館의 發展과 圖書館의 發展에 기여해야 한다는 使命意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李 萬 甲

서울대학교附屬  
圖書館長  
(서울文理大 敎授)

서울대학교圖書館綜合計劃具現의 重責을 지고 今年 5月 12日에 서울대학교附屬圖書館長職에 赴任한 李萬甲敎授는 1921年 2月 14日 平安北道 龍川에서 辯護士집의 아들로 誕生하였다.

新義州公立中學校를 卒業하던 1938年에 社會科學을 工夫하기 위해서 日本國으로 건너가 松山高等學校(文科甲類)에 入學하였다.

家業을 잇기 위하여 한 때 法律工夫를 해 보려고 한 바 있으나 當時 高等學校 法學通論 擔當先生은 授業時間에 法學은 戒쳐놓고 文學哲學등에 關한 이야기로 時間을 보냈던 관계로 딱딱한 法律學보다는 다른 工夫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941年 日本國 東京帝國大學 文學部에 入學하여 社會學을 專攻하게 되었고 1944年 9月에 東京帝大(社會學科)를 卒業하였다.

解放後 서울대학교文理科大學 講師로서 社會學講義를 擔當한바 있으며 6·25動亂이 勃發하자 空軍將校로 入隊하여 作戰局 人事局의 參謀로서 活躍하

다가 空軍 中領으로 豫備役に 編入되었다.

豫編後 即時 交換敎授로서 美國 코넬大學에서 1年間 社會學을 敎授·研究하였으며 歸國後 서울대학교文理大 敎授로 就任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그 間 校內에서는 文理大學學部長을 歷任하였고 各種 委員會 委員, 文理大學長職務代理 등을 歷任하여 서울대학교 發展에 寄與한 바 있으며 밖으로는 家族計劃協會의 委員으로 政府의 行政改革委員會 委員등으로 活動하고 있으며 國際學術會議, 세미나 參席次 前後 10餘次에 걸쳐 外國旅行을 하였음인지 見聞이 매우 該博하다. 1968년부터 서울대학교博物館長職을 兼하다가 1972年 5月 12日 서울대학교附屬圖書館長職을 兼務하게 되었다.

잠만 있으면 바둑을 즐기는 차분한 性格의 所有者로서 對話時의 나직하고 溫和한 音聲만을 듣고서는 모를일이 있으니 李館長은 乙支武功勳章까지 받은 文武兼備한 신비라 하겠다.

이와같이 찬란한 學歷과 經歷을 지닌 李敎授를 國立大學圖書館長으로 모시게 된데 대하여 圖書館界는 매우 기쁘게 生覺하며 目前에 達된 서울대학교綜合計劃에 따르는 圖書館의 新築 移轉 및 새로운 大學圖書館의 發展을 위하여 크게 期待된다.

李館長은 圖書館發展策을 樹立함에 參考하고자 美國, 日本등의 主要 大學圖書館을 視察키 위하여 現在 外國 旅行中이다.

旅行中 아무쪼록 健康하시고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고 歸國하시기를 衷心으로 祈願하는 바이다.